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4>]1975년 제주대에 식물학과 신설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3>-1970년대 연구동향.보고서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09.01. 00:00:00



▲한라산 정상에서 바라본 선작지왓 일대. 선작지왓은 한라산 특산 희귀식물이 집중 분포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제주산 식물연구 기폭제...학자들 배출

1974년엔 한라산 자원조사보고서 나와

해방후 제주도의 동식물상과 지질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는 1964년 11월에 있었던 한라산학술조사로 기록된다. 박만규 박사 등 무려 55명에 이르는 규모있는 조사단이 제주도의 동식물과 지질을 집단 조사하고 1968년 '한라산 및 홍도'라는 제목으로 조사보고서를 냈다. 이때 식물분야에서는 박만규를 비롯해 이덕봉, 이영노, 차종환 등 당대의 실력자들이 참여했으며 제주 출신으로는 부종휴 등의 연구업적이 두드러졌다.

1960년대가 제주도 연구의 토대를 놓는 시기라면 1970년대에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깊고 넓어져 갔다. 연구분야도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 시기에는 제주도가 중심이 돼 각종 연구사업이 활성화됐다.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1970년의 일이다.

우선 1973년에 이루어진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 종합조사를 꼽을 수 있다. 조사 집필에는 김영돈, 현용준, 진성기, 김정기, 홍정표, 송석범 등이 참여했으며 자연자원분야의 연구-집필책임자는 부종휴였다. 집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더라도 음악 등 일부 분야를 빼고는 대부분 제주 현지 학자들로만 이루어진 조사였다. 이때까지 제주의 학자들이 조사·연구해온 결정이 이 조사보고서에 집약된 셈이다. 보고서는 그해 제주도 당국의 주도로 출판되었다.

자연자원분야의 집필을 담당한 부종휴는 이 보고서에서 한라산과 비자림, 문주란자생지, 납읍온대림,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안덕계곡 상록수림, 천제연·천지연의 식물상, 파초일엽 자생지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한편 관리상 문제와 대책까지 제시했다.

▶제주도 차원의 공식적인 자연자원보고서는 74년에 나왔다. '한라산 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 보고서'가 그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종합조경공사(대표 최종성)가 참여해 발간됐으며 부종휴 등 제주도내 학자들도 참여했다. 보고서는 주로 자연경관과 식물자원을 중심으로 정리됐다.

자연경관에서는 정상 사라악과 물장울, 논고악, 동수악, 어승생악, 토적악(흙붉은오름) 등 오름 분화구의 특징과 역사, 전설 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또한 '나비박사' 석주명이 한라정원이라고 극찬했던 '속밭'을 비롯해 진달래밭, 윗세오름·장구목 일대, 큰두레밭, 삼형제오름 일대의 경관자원과 폭포, 주상절리, 한라산 적설, 결빙, 습원도 다뤘다.

습원(황原)으로는 어리목 산장 일대, 불레오름-삼형제봉 일대, 물가마밭(왕관능 동북습원)을 소개하며 특히 '물가마밭 주위는 구상나무로 둘러싸여 별천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지대'라고 밝히고 있다.

식물경관으로 난대림, 온대림, 한대림, 관목지대, 고산식물지대의 특징과 주요 식물이 소개되고 있다.

보고서는 한라산 방목에 대해서도 언급, 눈길을 끌게 한다. '소위 한라산의 관목지대는 늦봄에서 시작하여 가을까지는 방목지대가 되고 있다. 천미 이하에 있어서는 화입이든 벌채를 하든 손쉽게 회복이 되지만 천오백 고도 이상에서는 화입이든 벌채가 되면 극상림으로의 회복이 어렵고 보니 천오백미 이상의 지대의 방목에 알맞는 평탄지와 사면에 화입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한라산 방목에 대한 기록은 백록담에까지 이른다. '여름철이면 백록담에도 방목하는 소를 목격할 수가 있다. 지금은 없으나 1954년경 까지만 해도 한라산에 야우마(野牛馬)가 살고 있었고 제일차 대전때만 해도 야우마의 피혁을 사용했다는 말도 있다. 한라산 방목의 시비(是非)에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검토될 문제이나 상수도의 수원이 되는 지대와 백록담내의 방목은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제주산 식물에 대한 연구 중요성이 강조되자 대학 차원의 학과신설이 결실을 보게됐다. 1975학년도에 이르러 국립 제주대학에 식물학과가 신설된 것이다. 당시 모집정원은 20명이었다. 오현도, 김한림, 이용필 교수 등이 초기 식물학과의 연구토대를 구축해 나갔다.

제주대학에 식물학과가 개설되면서 제주 식물연구와 자원개발에도 새로운 활기를 띠기 시작

했다. 고석찬 교수(제주대), 김찬수 박사(국립산림과학원) 등은 70년대 중·후반 제주대 식물학과 출신들이다.

추자도 등 '섬식물상' 연구 식물의 방언연구도 잇따라

식물상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특정 지구별 보고서는 물론 제주자생식물의 방언연구도 잇따랐다.

나비박사 석주명은 광복전에 '제주도수필'과 '제주도자료집'에서 제주산 식물에 대한 방명을 조사한 바 있으며 제주대 현평효교수는 1962년에 제주도 방언연구를 하면서 제주산 식물 가운데 일부에 대한 방언을 조사 보고했다.

1969년에는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제주 부속도서 가운데 가장 큰 추자군도에 대한 식물상 조사가 실시됐다. 이 때의 식물 조사반은 박만규, 이창복, 이영노 등으로 상추자 하추자 횡간도 사수도 청도 등에 대한 식물분포를 조사, 추자군도의 식물상을 1백67종으로 보고했다.

이듬해인 1970년에 차종환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자림과 문주란 자생지의 식물을 조사보고했다. 1975년에는 백록담 분화구의 식생에 대한 조사가 실시됐으며 1978년에는 이창복이 천연기념물인 한란 자생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또 같은 해에 양기천에 의해 제주산 유독식물이 보고되어 축산경영의 새로운 자료를 제시했다. 1979년에는 제주대 김문홍이 제주 부속도서에 대한 식물상을 조사했다. 김문홍은 1977년에 한라산의 동서남북 사면별로 수목의 수직분포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